제100-38회『포경 건강경치학 콜로키얼』





❖ 일정

• 1부: 7:00-7:10 (0:10) : 콜로키엄, 연자 소개 및 인사말/ 신영전

• 2부: 7:10-8:30 (1:20): "팬데믹 시대,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경계".......



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3부: 8:30-9:30 (1:00) : 질의, 응답, 토론 참석자 전원

4부: 9:30- (∞): 온라인 뒷풀이: 희망하시는 분들만 계속 온라인 상에서 이야기 진행

❖일시: 2021년 4월 30일 (금) 오후 7:00-9:30

❖ 참석대상: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 대학원 학생과 활동가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신청 문의: sactiii12@gmail.com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전 세계는 전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취약성과 동물의 취약성은 어떻게 얽혀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전염병에 취약한 동물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메르스,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인간-동물질병 방역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 발생부터 대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는 인간과 동물이 맺고 있는 관계와 촘촘히 얽혀 있다. 야생동물들의 서식 지를 침범하고 동물체험카페에서 진귀한 야생동물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 한편에는 전염병의 원 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마구 살처분되는 동물들이 있다. 인간이 함부로 좁힌 거리와 함부로 넓힌 거리, 그 사이 생태적으로 올바른 공존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 책은 이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내 학자, 전문가, 활동 가 등이 한데 모여 이룬 성과이다. 인간-동물 관계 연구의 최신 논의와 성찰을 담았다.

■ 후원: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 연구소/ 한양대학교 보건학과·보건대학원/ 건강정책학회